



보도시점 2026. 5. 20.(수) 09:00

배포 2026. 5. 20.(수) 08:30

# 환경기술 기업의 특허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지식재산처, ENVEX 2026에서 기업 맞춤형 특허 상담 서비스 실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20.(수)~22.(금)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26, 이하 ‘ENVEX’)에서 환경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특허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ENVEX: Environmental Exhibition (한국환경보전원 주관)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ENVEX는 매년 250개 이상의 국내외 환경기술 전문 기업이 참가하고 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산업 전시회이다.

지식재산처는 2020년부터 ENVEX 현장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환경기술 기업의 특허 어려움 해소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관이 기업 칸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 내용을 청취하고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기업 맞춤형 특허상담’을 처음 도입하여 참가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기업 맞춤형 특허상담’을 한층 체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심층면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별도의 상담공간을 마련해 미공개 출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기술 면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심사관이 기업의 기술 및 출원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환경산업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분야로, 기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분야의 우수 특허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책임자	과 장	정기주 (042-481-5426)
	환경기술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손연미 (042-481-8151)

